

옛 그림 속 茶 이야기

6 문화도

남송시대 원림서 열린 시와 차의 어울림

1138년 중국 남송은 이민족인 금나라에 밀려 강남으로 내려와 입안(지금의 절강성 항주)으로 천도했다. 금나라와의 전쟁은 북송의 휘종과 흠종 두 황제가 금나라에 볼모로 잡혀가고 청동기와 서화 등 많은 수의 문화재가 약탈당해 소실되는 굴욕을 겪고 나서야 일시적 소강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금나라는 중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영토를 빼앗고 남송이 금나라의 신하가 된다는 협정을 체결하는데 성공했다. 이러한 난세 속에서 남송의 첫 번째 황제 고종(재위: 1127~1162년)은 예술과 문화 사업을 왕성하게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했다. 그러한 일환 중 하나로 황실에서는 다수의 회화작품을 제작했다. 궁중화원에 의해 제작된 다양한 선면화(扇面畫, 부채그림)는 인근의 사찰과 도관, 그리고 귀족과 문인들에게 하사품으로 배포됐다. 황실의 화원들은 구도와 필치, 섬세한 묘사 등 기술적 측면에서 수준 높은 화풍을 구사했는데 그림의 대다수는 강남의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황실과 귀족, 문인의 일상을 담고 있다. 이러한 그림들은 결과적으로 황실과 지배계층의 명예를 드높임으로써 통치의 정당화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한족의 문화적 자존심을 고취시키는 목적에도 기여할 수 있었다.

본이 가지런히 놓여있다. 그 원인으로 차를 준비하는 또 다른 탁자에는 청자다완(靑瓷茶碗)과 흑침다탁(黑漆茶托) 3세트 그리고 다병(茶瓶)이 놓여있고 시동은 점다(點茶)를 준비하고 있다. 그림 속의 문인들은 아마도 요란함을 싫어하고 단정한 성품을 지닌 듯, 탁자에는 흔히 쓰이는 술도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차색을 도드라져 보이게 하는 검은빛의 흑유다완 대신 청자다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차의 색과 모양을 애써 겨루는 투차(鬪茶)도 할 생각이 없는 듯하다. 문화의 성격에 따라 다안을 달리 사용



작자미상, '문회도', 22.6x23.8cm, 비단 위에 채색, 남송시대, 대북고궁박물관 소장.

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를 가감 없이 사실적으로 묘사한 화공의 솜씨가 돋보인다. 시원한 분위기의 그림 전체로 버드나무와 대숲의 바람소리가 들리는 듯한데, 그 속에서 사대부들은 누각에 앉아 한가로이 차담을 나누고 있다. 조선후기의 다성으로 추앙받는 초의 선사(3-4명)가 차를 함께 마시며 이취가 있지만 여러 명이 마시는 것은 그저 나뉘 마시는데 불과하다고 했다. 문인들이 풍류를 즐기며 학문과 예술을 교류하던 소규모의 문화는 여타의 큰 모임과는 달리 형식은 간소화돼도 시적인 정취만큼은 한결 높아졌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그림은 차가 있는 문화의 이상적인 순간을 포착하고 이를 정확하게 묘사하는 필력과 함께 시적인 정취를 잃지 않았다. 더불어 그림이 현실 세계에 대한 긍정에서 출발한다는 당시 궁정의 예술관을 잘 보여주고 있어 의미가 깊다.

이랑 lang312@hanmail.net 동아아시아문화연구원 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건이야기

3 보원사지(普願寺址)



사라진 풍경 앞에 섰다. 바라볼 수 있는 건 오래된 석탑 하나와 짙게 물든 은행나무 하나 뿐이다. 군데군데 돌무더기가 밀그림만 그린 그림처럼 남아있을 뿐, 그 옛날의 가람은 사라지고 없다. 사라진 풍경 때문일까. 찾는 이가 없다면 시간은 더 이상 흐르지 않을 것만 같다. 저 멀리 당간지주가 목을 길게 빼고 서있다.

절터를 찾은 두 연인이 멈춰선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하고, 사라진 풍경은 또 한 번 멀어져 간다. 이제 촛불을 켜던 자리엔 밤마다 달빛이 모여들고, 죽비가 걸렸던 자리엔 산 그림자가 걸린다. 저 빈 절터에 남은 밀그림은 사라진 풍경의 흔적일까. 아직 그리지 못한 그림의 진짜 밀그림일까. 지나간 시간이든 다가올 시간이든 그 시간을 보고 싶다.

옛 관화의 세계

시서를 모두 쉬다 병식시서(併息詩書)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당나라 때의 스님인 석교연(釋皎然)이 선(禪)하는 사람에게는 시서(詩書)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뛰어났던 시서를 버리고 선에 정진하는 모습을 관각한 작품이다. 석교연은 중국 당중기의 선승(禪僧)으로, 속명은 주(晔)이며, 속성은 사(澹)씨로 장성사람이다. 진나라 때의 유명한 시인 사평동(謝靈運)의 10대손이며, 현종 때 출생했고, 출가 후에도 시를 좋아하고 고전을 많이 읽어 당시의 명사들과 교제했다. 또한 시명(詩名)이 높아, 제기(齊己), 관휴(貫休)와 함께 당의 삼시승(三詩僧)으로 꼽힌다. 저서에 시문집 10권, 시식(詩式), 시평(詩評), 유석교유전(儒釋交遊傳), 내전유취(內典類聚) 등이 있다. 차(茶)에도 조예가 깊어 다신 육우(陸羽)와도 교분이 있었으며, 다도(茶道: 차를 마시고, 도를 깨닫는 다란 말도 스님의 "세 번 마시면 곧 도를 깨닫는다(三飲便得道)"라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동계(東溪)의 초당에 거처하면서 시서(詩書)가 선(禪)하는 사람의 뜻이 아니니 이것을 모두 그만두고자 하여 스스로 자기 마음에 타일렀다. '실사 공자와 같은 박식과 서신과 같은 다문이 있어서

마침내 내 눈앞에서 도를 자랑하고 의리가 풍부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나의 진실한 자성을 어렵게 하기에 꼭 알맞은 일이 될 따름이다. 그것이 어찌 외로운 소나무 한 조각 구름이 좌선하는 자리와 서로 마주보고 있으며, 말없이도 합치하고 지극히 고요하면서 자성과 같아지는 일만 하겠느냐? 나는 곧 서봉으로 들어가 소나무와 구름과 짝이 되겠다. 저술한 시식(詩式)과 여러 문필들은 모두 잠재워 기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내가 피곤하면 너는 힘있게 일을 하고 네가 고단하면 나는 어리석어진다. 너 때문에 헛갈린 지 수십 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 하물며 너는 외부의 물건인데 왜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는가? 머물러도 이미 무심하니 떠나도 역시 나는 없다. 너를 놓아주어 각기 본성으로 돌아가게 하여 물건은 스스로 물건이 되게 하고 나와는 관계가 없게 한다면 어찌 즐겁지 않겠느냐? 머제자에게 이것을 내버리게 했다.' 수행정진을 위해 시서인의 생명과도 같은 붓과 벼루를 버리고 세속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소나무와 구름과 짝이 돼 수행하는 선사들의 모습이 그려낸 시대이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관화박물관 관장)

詩가 있는 도량

■ 뱅크서나무처럼

산불이 나아
비로소 번식하는 나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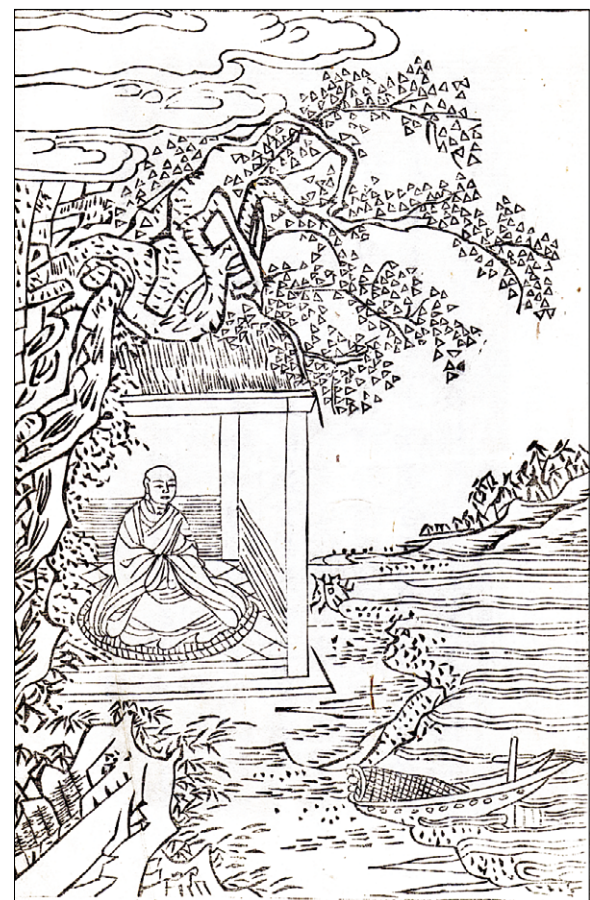
씨방이 너무 단단해 뜨거운 불길에 그을려야만
씨를 터뜨린다는 뱅크서나무

제 몸에 불을 붙여서라도
황무지에 알을 슬고 싶은 뱅크서나무

장전된 총알들, 그러나
한번도 불길에 휩싸여본 적 없는 씨방

모든 것이 타고 난 뒤에야
검은 숲 위로 연한 싹을 내밀고 싶은

—나희덕, 시집 <야생사과>에서



고관화박물관 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병식시서(併息詩書) 편, 불암사 판 1673년 간행, 반곽(半郭) 27.2x18.0cm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탕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사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37번지 성화미술원 공작내 불교전시관

주.야 상담 합니다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성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 [114 서비스] 검색 → 114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지하스님 지음
135쪽 | 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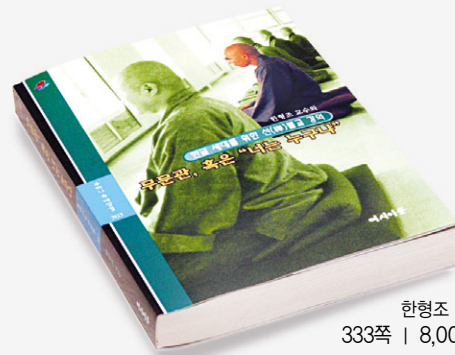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중생으로 시작해서 인간으로 끝납니다. 부조리한 백팔번뇌의 인간이 조화된 열반에 이르는 길이 바로 불교이기 때문입니다.



감산대사 지음 · 대성스님 옮김
247쪽 | 8,000원



마음은 본래 맑은 못과 같으나, 눈앞의 경계를 받아들이는 까닭에 그 성품을 혼탁하게 하여 온갖 어지러움을 일으키고 고만에 빠지며 번뇌를 낳는다. 그 근본 원인은 집착에 있다.



한형조 지음
333쪽 | 8,000원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만법귀일(萬法歸一) 선(禪)에서의 모든 물음은 하나로 귀착된다. "너는 대체 누구냐?"

www.HyunbulShop.com

기존의 「여시아문」이 「현불상」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불교상품에서 일반용품, 불교도서, 음반, 각종 이벤트 등 「온라인쇼핑몰 현불상」을 인터넷에서 만나보세요.

현대불교 현불상 | 서울시 중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농협 053-01-283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8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